

하이힐 착용 심리에 대한 질적 연구

조선명[†] · 김희선 · 고애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Meanings of Wearing Female High-Heeled Shoes

Sunmyoung Cho[†] · Heesun Kim · Ae-Ran Koh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접수일(2009년 2월 10일), 수정일(1차 : 2009년 4월 30일, 완료일 : 2009년 7월 9일), 게재확정일(2009년 7월 11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emale motive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related with high-heeled sho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females having more than forty pairs of high-heeled shoes. Exploratory data are classified into physical aspects and mental aspects, and the meaning of wearing high-heeled shoes were derived and discussed. First, with high-heeled shoes, the participants tried to make an ideal physical appearance, 1) to make an aesthetic illusion of a longer, more slender body 2) to make a more glamorous bodyline and toned legs. Second,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were as follows: 1) Wearing high-heeled shoes, they felt self-confidence in appearance and had feelings of satisfaction, fulfillment, and superiority. 2) High-heeled shoes gave wearers an increased sexual appearance in addition to a feminine attitude and independent mind. Accordingly, wearers thought they could make males compliant with a better sexual look in private and public life. 3) Through buying or putting on high-heeled shoes, women could change their mood, have mental stability, and channel sexual desires. 4) Some women made the secret self with the collected high-heeled shoes for sexual fantasies. 5) They thought that painful bodies or feet were not cumbersome. In addition, some wearers thought high-heeled shoes were a natural extension of their bodies.

Key words: High-heeled shoes, Ideal body, Self-confidence, Femininity, Sexual desire; 하이힐, 이상적 신체, 자신감, 여성성, 성적 욕망

I. 서 론

Freud는 발은 원초적 상징이며, 구두는 여체를 상징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여성의 발과 신발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류의 진화는 발에서부터 시작했고, 인류 진화의 시점이라 알고 있는 직립보행은 발의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직립보행으로 인한 인체의 변화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가슴, 상체를 떠받치는 커다란 엉덩이, S자의 척추선, 가느다란 목선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적이라 불리우는 신체 부위가 모두 직립보행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점이다. 네발 보행 때는 감추어져 있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드러난 신체 부위들은 지속적인 시각적 자극을 일으키고 반응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발은 인간의 성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많은 정신분석학자와 의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로시, 1993/2002).

여성의 작은 신발 하면 신데렐라의 구두를 생각하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의 민간설화는 수많은 문화권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cho7@hotmail.com

에서 전해져오고 있고 모두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iello & McNeil, 2006). 1000년 이상 존속해온 여성의 발을 묶는 풍습인 중국의 전족(纏足)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련되어진다(차은진, 박민여, 2001; Wang, 2000). 전족을 한 여성은 성 기관의 특수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설도 있고, 부녀자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구속이 목적이라는 설도 있다. 또한 전족을 하게 되면 뼈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날씬해지는 반면 엉덩이가 발달하여 성적 매력에 커진다는 설 등 전족의 유래에 대한 제설은 분분하다(이의정, 양숙희, 1997). 이밖에도 일본의 게이샤나 중국의 후궁들은 높은 통굽이 달린 나막신을 신었고, 터키 군주의 침들도 규방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매우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해야 했다(Riello & McNeil, 2006).

굽이 높고 발이 좁은 형태의 여성의 구두인 하이힐(high-heeled shoes)은 몸을 감싸는 피복적인 측면보다는 보행 및 체형의 변형과 관련된 형태적인 요소가 강조된 아이템이다. 굽을 통해 신체의 비율을 변화시키며 인체와 상호작용을 한다. 하이힐을 신으면 가슴과 엉덩이, S자 척추선, 가느다란 목선은 더 강화되고, 긴 머리카락과 스커트 등과 달리 아직까지 주로 여성만이 사용하고 있는 금남(禁男)의 아이템이다. 또한 다양한 신발의 종류 가운데 하이힐은 복식 및 신발 디자인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여성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패션의 조형물이다(김선아, 2008).

인류가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신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곧 심리적 보호와 연계되었고, 신

발의 길이와 높이를 확장함에 따라 착용자의 자아도 확장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 계층적, 심리적 상징이 되었다(김민자 외, 2001).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신발은 ‘여성적’ 혹은 ‘여성’으로 해석되며, 신발에 신겨지는 발은 남근을 상징한다고 한다. 길이 방향의 확장은 남성의 신체 능력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즉 신발의 길이는 왕과 귀족 또는 평민을 구분하는 신분 상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높이 방향으로의 확장은 신장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그 높이에 따라 사회적 위치와 품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등장한 스틸레토 하이힐은 현대적인 미적 가치와 함께 신체 능력 확대성과 성적 상징성, 패션성을 내포하고 있다(김민자 외, 2001; Cox, 2004; Riello & McNeil, 2006). 하이힐의 복식사적 기원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류된다. 최초의 하이힐은 젖은 땅과 오물로부터 발과 신발 및 의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Lawlor, 1996), 또한 작은 키를 크게 보이려는 신체 확대와 이를 통한 신분 상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위해, 그리고 장식과 패션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행 아이템으로 그 발전을 거듭해왔다(김선아, 2008).

최근 들어 여성의 구두와 하이힐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얻은 미국 드라마 ‘Sex And The City’는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개방된 의식 및 특정 디자이너의 구두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하이힐에 대한 선호와 유행을 한층 고조시켜주었다. 그러나 하이힐을 착용함으로써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발가락 흉터, 붓고 저리

<표 1> 면접 대상자 프로필

Case	연령	결혼유무	직업	신체특징	선호하는 의복 및 외모
1	29	미혼	대기업(IT) 마케팅	162cm, 52kg, 긴 머리, 도시적인 이미지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의 수트 선호, 주말엔 청바지에 하이힐 즐겨 착용
2	25	미혼	대학원 패션전공	163cm, 50kg, 마른 얼굴, 짧은 머리	평소엔 편안한 캐주얼, 주중엔 정장 스타일 선호
3	26	미혼	대학원 영문학전공	162cm, 48kg, 큰 눈, 작고 가름한 얼굴	개성 있으면서 유행하는 의복, 청바지와 화려한 액세서리 선호
4	33	기혼	일러스트레이터	170cm, 53kg, 긴 머리, 서구적인 이목구비	미니스커트, 타이트한 블랙 의상, 화려한 패턴과 액세서리 선호
5	32	미혼	해외기업 기획	164cm, 55kg, 둥글고 여성스런 얼굴	심플하고 여성스런 정장 스타일 선호
6	32	미혼	대학강사	167cm, 53kg, 단발머리, 작은 눈과 광대뼈	단정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스타일과 화려한 액세서리 선호
7	33	기혼	글로벌기업 컨설턴트	164cm, 52kg,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	심플한 블랙 또는 감색 정장 선호, 주중엔 운동화나 슬리퍼에 캐주얼

는 발, 체형의 변화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많은 연구와 언론을 통해 하이힐을 착용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Kerrigan et al., 1998). 이와 같이 수많은 현대 여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지희(2007)는 구두에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구두를 착용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하이힐을 신는 것과 정신분열증 발생 사이에는 역사적·지역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Flensmark, 2008).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하이힐 착용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특히, 하이힐 착용은 어떤 이유이고, 착용 시 어떤 감정 상태이며,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인 심리적 혹은 사회, 문화적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하이힐 착용 실제와 주관적 경험담에 관한 기초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힐 착용 동기와 착용 행동을 심층 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접 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는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하이힐을 40켈레 이상 보유한 여성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하이힐 착용 이유와 착용시의 감정, 태도 및 주관적 경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하이힐 착용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 자료를 주제별로 제시하고 해석하며 후속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하이힐이라는 특정 패션 제품 착용의 숨겨진 내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하이힐을 40켈레 이상 수집·보유한 2-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법(in-depth interview)에 의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이힐을 40켈레 이상 보유한 여성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실시한 이유는, 하이힐에 대해 주체적인 관심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하이힐 수집자들을 통해 일반 여성들에게서는 잘 부각되어지지 않는 내면적인 욕구와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면접 대상으로는 25-35세 여성 7명으로, 면접을 위한 정보제공자 선정은 의도적인 편의추출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개인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해당되고, 외모 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대상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Spradley(1979)가 제시한 내용인, 정보제공자는 연구주제에 문화화되어 있어야 하고,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면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고 연속적인 관계가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계 속

하이힐 보유 개수	구매 장소	선호하는 브랜드와 스타일
하이힐 50켈레	면세점, 백화점, 대형 패션몰, 온라인 쇼핑몰	페라가모, 구찌, 세라, 보세 등 여성스러우면서 심플한 디자인, 샌들의 경우 화려한 디자인 선호
하이힐 50켈레 이상	백화점, 면세점, 해외 상점	샤넬, 루부탱, 지미추, 9cm 이상의 스틸레토 등 흔하지 않은 스타일 모두 선호
하이힐 50켈레 이상	백화점, 할인점, 디자이너샵, 온라인 쇼핑몰	더슈, 최정인, 슈플라보니 등 감각적이고 패셔너블한 스타일 선호
하이힐 6-70켈레	해외, 백화점, 면세점	브랜드에 관계없이 디자인이 좋으면 모두 선호, 뽕족하고 짧은 코에 날렵한 굽, 화려한 패턴과 소재 선호
하이힐 포함 구두 70켈레 정도	백화점, 해외 상점	8-10cm 굽의 날렵한 앞코 등 아름다운 라인의 하이힐 선호
하이힐 48켈레	할인점, 면세점, 보세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선호
하이힐 40켈레 신발 7-80켈레 정도	백화점	심플하고 뽕족한 겹창 구두 프라다, 구찌, 나이키

2. 자료 수집

응답자의 관점에서 개별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미리 구체적인 질문들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가 스스로의 관심과 생각, 느낌을 밝히며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요청한 핵심 질문은 ‘하이힐을 왜 착용 하는가’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의 기분과 느낌이나 구체적인 경험 및 다양한 생각 등을 응답자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한편, 하이힐에 대한 정의는 굽 6cm 이상의 높은 굽이라 명명하며 면접을 시작하였으며, 채민정 외(2008)의 연구에서도 높은 굽(High Heel)은 6cm 이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면접 대상자당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이 부족한 추가 부분들은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완하였고, 직접 면접 방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06년 12월~2007년 8월에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계절에 따라 디자인과 용도에 차이가 있는 하이힐의 계절적 편차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고, 가을에 해당되는 기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자료 분석

분석 방법으로는 귀납적인 접근 방식의 하나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나온 개념, 혹은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면접 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며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lesne, 2005). 자료 분석 과정은 전사, 자료 통합, 영역 분석, 자료 범주화, 의미해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층 면접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술하여 느낌이나 생각이 생생하게 전해지도록 전사(transcription)되었으며,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료 분석의 결과를 자료 수집에 재반영해야 하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 과정 동안 계속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여러 번 읽어가며 코딩해 나가면서 주제를 잡고 주제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즉, 수집 과정에서 모아진 자료들을 세밀하게 읽어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그 단어들에 영역을 부가하여 도출된 각 영역들의 관계 및 하위 영역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유목화하는 단계를 밟고, 이들 유목화된 영역을 정교화하는 단계를 거쳤다(Pattern, 1990).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제와 개념을 도출해냄으로써, 하이힐 착용 행동에 관계된 복합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하이힐에 관한 고유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패션 아이템으로서 관련되어 나타나는 내용은 본 연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목화된 자료들은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류학 전문가 2인 및 현시대의 트렌드를 해석하는 패션 연구원 2인에게 보여주어 분석과 해석에 대해 조언과 비평을 얻었다.

III. 결과 및 해석

인간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행동에 대한 동기(動機, motive)를 알고자 함이며, 또한 행동의 원인에 대해 알고자 한다는 뜻이다(김훈기, 2005). 행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되어 일어나며, 많은 요인들이 동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기의 개념과 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혹은 행동을 유발하는 유형이나 그 원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동기는 행동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로서, 내적인 기질과 같은 개인 내부에서 오는 것인지, 혹은 문화적 기대나 사회적 압력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에 의한 것인지로 구분되기도 하며, 인간의 동기는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한 행동은 원인인지 결과인지 인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을 내포하기 때문에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해명하기보다는 동기적 설명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동을 이해하려 한다(김훈기, 2005; 오세진, 2005; Myers, 2004).

본 연구의 면접 주제인 ‘하이힐을 왜 착용 하는가’는 하이힐 착용 행동의 동기에 관한 의문이다. 의복은 일련의 복잡한 동기들의 산물이며, 다양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조건들로부터 발생한다(Horn, 1981). 또한 의복은 심미적, 상징적 특징을 지니며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착용을 통해서도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킨다(Kaiser,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

힐 착용 행동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원인 및 심리 과정으로서의 설명을 통해 하이힐 착용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크게 ‘외관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의 2가지로 구분하여 면접 결과를 유목화 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첫째, 외관적인 측면의 경우 ‘하이힐 착용 시의 신체 모습 변화’, 둘째, 정신적인 측면의 경우 신체 모습 변화와 관련된 ‘하이힐 착용 시의 심리적 경험’으로 명명하고 주제화하였다. 전자의 경우, 1) 신장과 하체 길이 보완 2) 몸의 곡선과 각선미 향상의 시각적 효과, 그리고 후자의 경우, 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2) 여성성 향상과 표현 3) 감정과 욕망의 해소 4) 공상과 즐거움 충족 5) 본래의 모습·감각에 대한 회피 경향의 5가지 하위 영역들을 포함한다.

1. 하이힐 착용 시의 신체 모습 변화

의복은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혹은 신체의 연장으로서 신체의 모습을 확대하거나 줄이기도 한다(강혜원, 1995). 또한 의복의 미적·조형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체형 지각의 시각적 윤곽을 바꿀 수도 있다. 즉, 문화적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눈의 지각 반응에 대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신체적 자기의 특징을 최대로 조정할 수 있다(Horn, 1981). 하이힐은 힐(heel)에 의한 높이의 축성을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김민자 외(2001)에서도 여성의 키를 더욱 커 보이게 함으로서 신체 능력의 미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신장과 하체 길이를 보완하고, 둘째, 몸의 곡선과 각선미 향상의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장과 하체 길이 보완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모두 하이힐의 굽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유용성인 다리 길이의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였다. 응답자들은 162-170cm의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장과 다리 길이를 ‘부족한 점’이라 언급하였고, 좀더 큰 키와 긴 다리를 위하여, 혹은 상체와 하체의 비율(proport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이힐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신장은 여러 신체 부위 중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부위이며(임경복, 2008),

무엇보다 성장이 멈춘 성인의 경우, 신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하체 길이의 비율을 높이고 신장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6cm 이상의 굽(heel)의 효용성은 응답자들이 하이힐을 착용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작고 다리가 좀 굵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가 커 보이기 위해 하이힐을 좋아하고. 다리는 짧아서 하이힐을 신지 않으면 뭔가 전체 프로포션이 안 맞아요. (Case 1)
- 우선, 키가 작으니까. 힐을 안 신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Case 2)
- 굽이 없는 걸 신으면 키가 작은 게 너무 드러나서 굽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Case 6)
- 제 키가 요즘 일반 여자애들 보다 작고 다리가 짧아서, 하이힐을 신지 않으면 안돼요. 특히 바지 입을 때는 더 심한데 그 때는 9cm 정도 신고, 치마 입을 때는 조절해서 약 6cm 정도. (Case 3)
- 제 몸에 부족한 점이 많죠... 뒷보다 다리가 짧다는 거. 5cm 정도만 더 길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높은 굽에 집착하게 되요. (Case 5)

2) 몸의 곡선과 각선미 향상의 시각적 효과

하이힐을 신으면 중심을 잡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부분을 앞으로 내밀게 되기 때문에 S라인의 효과가 있다. ‘라인(Line)’은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실루엣이나 맵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신었을 때, 가슴과 허리, 엉덩이, 발목이 강조되면서 여성적인 신체 곡선이 살아난다는 몸매 교정의 기능에 많은 애착 및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즉, 여성적인 S라인의 효과와 좀 더 가늘어 보이는 다리와 발목을 만들어 몸의 곡선과 각선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다시피 신기하게도 하이힐을 신으면 S라인이만 들어져요. 매직 라인이에요. (Case 2)
- 납작하고 밋밋했던 몸매가 갑자기 굴곡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Case 7)
- 저는 개인적으로 굽 모양을 너무 중요시하는데 안쪽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살짝 들어간 굽을 꼭 찾아요. 그러면 발목에 곡선과 대칭같이 이루면서 발목이 좀 더 가늘어 보이면서 괜찮은 곡선의 다리 모양이 나오거든요. 바로 몸매의 S라인은 그곳부터 시작되기 때문예. (Case 1)

· 굽 모양도 중요해요. 안으로 살짝 곡선이루며 일자로 또 떨어지는 굽. 그런 굽이 발목이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 주면서 몸의 곡선을 더 살려주거든요. (Case 4)

발을 더욱 작아 보이게 하며 몸매를 돋보이게 해 시각적으로 여성적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층 두드러지게 하는 하이힐의 효과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Riello & McNeil, 2006). 이와 같이 신체 모습을 시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이힐의 기능적 효용(benefit)은 본 연구의 응답자들 또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가장 먼저 강조하는 착용 동기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신체 모습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서구화된 신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나아가 그냥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이루는 가슴과 엉덩이, 날씬한 허리가 어우러져 볼륨감이 있는 건강미와 섹시함을 함께 갖춘 여성성이 강조된 몸매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다.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지 이상적인 신체와 외모에 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데, 인상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체중조절행동이나 성형수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신체 모양 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임인숙, 2002; 조선명, 고애란, 2001). 하이힐은 건축적 요소, 미학적 요소, 보행적 요소, 디자인적 요소, 상품적 요소, 인체공학적 요소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닌 패션 아이템이다(Cox, 2004). 따라서 여성들은 하이힐 착용을 통해 신장을 보완시킬 뿐만 아니라 몸매의 곡선을 변화시켜 사회 문화적으로 제시된 아름다움을 실현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하이힐 착용 시의 심리적 경험

Sontag and Schlater(1982)는 자기(self)에 대한 의복의 근접성(proximity)라는 연구를 통해 의복과 자기의 다면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의복은 자신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자기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며,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며, 자기가치, 자존심의 표현으로서 지각되며, 또한 자기 평가의 감정적인 한 요소이자 신체적 만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착용하는 의복은 자신의 내면적인 특성과 의식적·무의식적 욕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상대방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 자신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강혜원, 1995;

Flügel, 1930).

본 연구의 결과, 하이힐을 착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변화된 신체 모습은 착용자 자신의 내면에 반영되어 다양한 감정과 주관적 경험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5가지를 중요한 주제로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사례 제시와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 자신감 및 자기만족감, 우월감 향상

응답자들은 하이힐 착용 시 높은 자신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거울을 보며 짧다고 생각되었던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신장이 커 보이며, 또한 여성적인 라인이 생기면 신체 모습이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 혹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 구두 위에 올라서면 가슴과 허리가 딱 펴지는 게 자신감이 생겨요. (Case 5)

· 청바지 밑에 하이힐 신고 나가면 더 늘씬하게 보일 것 같은 자신감이 마구 솟아요. (Case 1)

· 힐 신었을 때는 자신감이나 우월감 같은 게 생겨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키 커두 더 커 보이고 싶고, 말라도 더 말라보고 싶고, 예쁜 애들이 성형도 더 하듯 뭐 그런 거 아닐까요. (Case 2)

· 10cm 정도 발꿈치가 들어 있으면서 완벽한 라인으로 웬지 모를 자신감으로 무장한 듯 한 기분이 들면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멋지고 당당한 워킹이라도 하고 싶어요... 전 임신 중에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굽이 있는 신을 신었어요. 어디에서든 키 크고 늘씬해 보이고 싶으니까. (Case 4)

· 낮은 거 신으면 다리가 반쯤 잘린 기분이 들어요. 높은 거 신으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 듯해요. 윗 공기도 마셔 보고 내가 늘씬해진 것 같고 그래요. (Case 2)

응답자들은 시각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는 신체 모습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들려 있는 발뒤꿈치와 발바닥으로부터 전해지는 '신체 전체의 실제 느낌'을 만족감과 함께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만족감을 신체 착용감과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하이힐에 '올라서면'이라는 어구를 통해 하이힐 착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쿼트, 윗 공기 등과 같은 '상승'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만족스러운 기분은 자신감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 혹은 우월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힐을 신고 딱 올라섰을 때의 느낄 수 있는 텅 공기... 이제야 내 자신이 내가 된 것 같은 기분. (Case 3)
- 일상에서는 신고 다닐 수 없는 높은 화려한 구두 신고, 거울 보고 그러면 그냥 즐거워지고, 또 하이힐 신었을 때의 기분 있잖아요. 갑자기 신고 딱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콧대도 올라가는 듯한... 그 특유의 기분 있잖아요. 늘씬해지고 멋져진 나... (Case 1)
- 자기만족인데, 이상하게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이 배어 나오게 되요. (Case 7)
- 일단은 내 자신에게 만족하려고 하이힐을 신는 거 같아요. (Case 6)

신체적 매력은 생동적 가치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사회적 권력, 타인들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 자기존중감과 정적 관련이 있다(Bloch & Richins, 1992; Etcoff, 1999).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는 행동들은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근거나 동기가 되고, 특히 여성은 신체적 매력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으며 이를 높이기 위해 매력적인 신체 외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강혜원, 1995). 그러므로 여성의 하이힐 착용은 보다 높은 신체적 매력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기 위한 근거이자 동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Simmel(1957)은 유행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월성과 동조성이라는 상반된 욕구를 교묘히 만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심 집단이 추구하는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가 뒤섞여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룻다리, S라인 몸매 등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몸짱’ 유행의 주역들이자 사회문화적 이상미이다(임인숙, 2002). 따라서 여성들은 하이힐을 착용하면서 발끝으로부터 전해지는 신체 전체의 모습과 느낌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한 다리가 긴 늘씬한 외모의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의 월등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성취감과 우월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여성성 향상과 표현

: 관능미와 정숙성, 여성적 우월감

응답자들은 하이힐은 ‘여성적인’ 아이템이며, 여성

적인 실루엣과 스타일을 완성해주는 여성의 아이템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시각적으로 여성스러운 모습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이힐을 착용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태도와 모습을 갖추게 되는 등 스스로가 여성스러운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해준다고 하였다.

-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여성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도구. 늘 여성스러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이힐을 신으면 그냥 내가 더 여성스러운 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Case 1)
- 여자들이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여성적인 아이템은 바로 하이힐이에요. 속옷보다도. (Case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힐은 여성성 중에서도 관능미와 높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였다. 하이힐 구두 자체가 섹시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몸매와 어우러지는 섹시한 라인을 상상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관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라고 하였다.

- 그 아찔하고 날렵하게 빠진 힐을 보면 정말 섹시하고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얼른 신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Case 4)
- 하이힐을 보면 여성들만이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섹슈얼하게 많이 표현이 되죠. (Case 7)
- 하이힐의 매력이라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여성성의 극대화, 그리고 섹시함이겠죠. 멋진 하이힐을 신은 여성.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Case 5)
- 하이힐과 관능미는 강한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노골적인 관능미는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관능미는... 정제된 노출로 이끌어내는 관능미예요. (Case 6)

또한, 흥미롭게도 섹시하고 관능미의 상징이라고 하는 하이힐이 착용 시에는 대조적으로 자기통제적 기능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힐을 착용했을 때 청바지를 입더라도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게 되는 등 긴장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더 정돈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하이힐은 여성으로서의 도도함, 정돈된 느낌이었을까? (Case 6)
- 하이힐을 신었을 경우 청바지를 입더라도 옷매무새를 갖추고 자세를 흐트러트리기 힘들어요. (Case 5)
- 하이힐 신은 여자들은 본인을 잘 가꿀 수 있는 센스

쟁이 같아요. 물론 잘 정돈된 룩에 완성도 있는 힐을 신었을 경우에 한해서요. (Case 4)

· 하이힐을 신으면 웬지 화장도 더 신경써서 고치게 되고 걷는 것도 조심하 걸고 다른 사람도 의식해서 행동하게 되요. (Case 3)

성전환자(trans gender)에게서 그 단서를 찾아보면 무엇이 '여성적'인가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확실히 내려질 수 있는데, 화장, 팬티스타킹, 하이힐, 파운데이션 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신들의 새로운 성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Riordan, 2004). 하이힐은 여성적이라 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조사되었고(최경희, 2008), Kim(1993)의 연구에서도 고정관념적으로 하이힐은 여성과 연관된 아이템 중 하나임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첫째, 하이힐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여성성과 높게 관련된 아이템으로서, 관능적 혹은 정숙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성적 고정관념(stereotypes)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관능적 혹은 정숙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외적·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이힐 착용 시 관능적인 모습과 높은 자신감으로 여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느끼며 남성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경험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경쟁이 불가피한 공적인 세계에서, 향상된 신체 모습과 여성 고유의 이미지를 드러내어 자신의 힘으로 재현하려는 경험담도 나타났다.

· 하이힐을 신어서 시각적으로 섹시하게 보이는 것보다, 남자들을 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기분(태도)이 더 큰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음 그래. 난 쪽 빨았어. 매력적인 자태를 가졌지... 너희(남자)들은 나한테 정신을 못차리겠구나... 음... 이것봐... 그래... 그래... 이렇게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쿵대랑 툅은 올라가고 어깨는 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남자들을 보며 눈은 점점 내리깔고 있는 만족스럽고 흐뭇한 자신을 발견하죠. 여왕 같은 기분일걸까... 하이힐은 그래서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우월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도도해지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하이힐 굽 소리를 좀 세계 내기도 한답니다. (Case 1)

· 프리어나 리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싫어한다기보다 단지 같이 일하는 남자들한테 쓸데없는 불필요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어쩔 때는 꼬투리가

되기도 해요. 하이힐은 좀 다르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러 갈 때나 특히 final presentation을 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만 또한 직업상 세련된 외모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럴 때는 클린 라인의 블랙 정장에 꼭 8cm 블랙 하이힐을 신어요. 단상에서 키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도 이유이고 전문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고 또 그 외모 효과는 결코 무시 못 하거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스스로 더 절제되고 오히려 더 이성적이 되고 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 잘하고 클라이언트들을 더 강하게 압도하게 되죠. (Case 7)

김민자 외(2001)는 현대에 와서 하이힐은 전통적인 여성적 수동성과 성적 대상인 사랑의 상징에 공격의 상징이 부가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적 강함과 권력, 지배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지배적이고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된 심리를 현상화 하고자 할 때, 이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외적인 의복표현 중에서 하이힐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의 신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자(임경복, 2008), 임의적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인 '신장'을 확대시켜 여성으로서의 우월감과 함께 다양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며 여성적이기도 남성적이기도 한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 여성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감정과 욕망의 해소 : 기본 전환과 정신적 안정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착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날아갈 것 같은 유쾌한 긍정적인 기분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이힐 구매나 착용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어구들이 자주 반복되었으며, 마음이 심란하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나 특정 욕구에 대한 불만이 일어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이힐에 의지한다고 하였다.

· 새로 산 빨간 힐을 신으면... 살랑 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Case 4)

· 기분의 변화라고 할까... 가끔 제 자신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딱 좋을 뿐이에요. 제 발에 완벽하게 딱 맞은 힐을 신고 나면 웬지 뿌듯하고 발의 그 팽팽한 느낌은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결 기분이 업된 듯한 묘한 매력을 느껴요. (Case 7)

· 어쩔 땐 저도 모르겠는 욕구나 답답한 감정을 주체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 호피나 더 섹시한 하이힐을 사게 되죠. 그러면 웬지 가슴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할까. 다른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Case 1)

·보수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있거나 감정의 폭발이 필요할 때는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싶거나 과감한 패턴의 구두를 사면 마음이 편해져요. 올 엄마는 맘이 허한 걸 달랠 수단으로 힐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죠. (Case 6)

동화 신데렐라나 빨간 구두를 비롯한 동서양의 많은 민간설화에 등장하는 구두 이야기는 여성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발은 예로부터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부끄러운 부분으로 여겨져 온 발과 관련하여 숨겨 있는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Mazza, 1994).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구두를 착용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 심리와 관련이 있고, 불안, 좌절, 대립, 결여, 결핍 등과 관련된 욕망 및 감정을 해결하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이지희, 2007). 이 밖에 하이힐을 신는 것과 정신분열증 발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Flensmark, 2008). 즉, 역사적으로 하이힐은 1천여 년 전에 처음 신기 시작했고 뒤이어 첫 정신분열증이 보고됐으며, 하이힐의 양산에 따라 정신분열증도 만연하게 됐다고 한다. 지역이나 성별을 고려할 때도, 하이힐을 많이 신는 서방국가의 여성들에게 정신분열증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도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난, 하이힐을 통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 해소나 감정을 전환시키려는 심리적 경험들은 무의식적인 성적 욕망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공상과 즐거움 충족

: 자신만의 성적 환타지, 놀이와 수집의 대상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특정 디자인의 하이힐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이 알고 있고 꿈꾸는 새로운 모습이었다. 주로 풍부한 성적 매력력을 갖춘 모습이었고, 핑크, 레드 및 호피, 레오파드(leopard)와 같은 특정 색상이나 재질들이 언급되었다. 시간이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이힐을 바라보거나 착용하며 자신의 색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연출하거나, 공적인 공간에서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모습을 위한 한 요소로서 활용

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분홍 털이 달린 섹시한 구두... 그것을 신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 너무 멋진 내가 될 것 같은... (Case 4)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같은... 여자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 하면 머하지만...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품는 환상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사실 여름에 깔끔한 원피스 입고 가끔 호피무늬의 섹시한 슬리퍼 신을 때 있는데, 사실 속옷에 맞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 남다르죠. (Case 1)

·한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이 갑자기 동물무늬나 화려한 컬러의 섹시한 구두를 신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면 본인이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거... 맞나? 싶어요. 오호... 내면의 욕구를 감추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어요. (Case 6)

또한 하이힐은 신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구매 한 후에도 착용하지 않고 모으고 진열해놓고 보며 자신을 위해 즐기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즉, 하이힐을 40켤레 이상 보유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수십 켤레의 하이힐들을 진열해 놓고 뿌듯해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많은 하이힐을 모으며 풍요로운 삶과 높은 여성성에 대해 만족감을 얻기도 하였다. 하이힐 자체를 놀이의 도구나 수집의 대상으로 여기며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할 때 집에서 혼자 그냥 신고 즐기는 구두도 있어요. 하나는 은빛 나는 샌들인데 발목에 끈도 묶여져 있고 굽도 10cm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사진도 찍어 붙여놨죠. 레오파드무늬의 물도 제가 사랑하는 구두 중 하나인데, 굽이 빨간색이에요. 나중에 빨간 매니큐어 바르고 beach가서 신으려고 사두고 모셔놔요. 그것도 기분 전환 겸 집에서 가끔 신고 비키니 입고 거울 보고 비치 놀이해요. (Case 1)

·큰 건 큰 것대로 모양이 안 나고, 작은 건 발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에 한두 번 신을까 말까 하는 정도지만, 가끔 집안에서 혼자 코드 놀이 하면서 신어 보고 먼저 닦아주고 그래요. 물론 구입 당시엔 언젠간 꼭 신을 상황이 생길꺼라 믿고 샀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죠... 쪽 늘어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Case 4)

·살 때 매장에서 신어보고 한 번도 안 신은 게 더 많아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Case 2)

Eicher(1981)와 Eicher et al.(2008)은 개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 자신만의 사적인 영

역(private context)이 있는데, 이를 비밀 자기(secret self)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은밀한 자기를 위해 실험적이고 즐기기(fun) 위한 의복들이 존재하고, 공상(fantasy)을 위해 색시하거나 강렬한 색상의 특정 의복들이 활용된다고 하였다(Kaiser, 1990). Miller(1997)도 많은 여성들이 성적 환타지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비밀 의복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난, 하이힐을 통해 풍부한 여성성을 갖춘 모습을 상상하거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심리적 경험들은 비밀 자기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하이힐은 공상과 즐거움의 심리적 경험을 충족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여성들은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하이힐을 착용하고 애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본래의 신체 모습과 감각에 대한 회피

: 신체의 일부로 인식, 불편함에 대한 익숙함

본 연구결과,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착용하기 전의 본래의 신체 모습이나 신체 감각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우선 첫 번째, 응답자들은 하이힐을 착용하지 않고 타인을 대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타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등의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이힐을 신지 않고 외출하면 볼륨 업(Volume-up) 브래지어와 같은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을 때처럼 어색함을 느낀다든가, 나아가 다리가 잘린 것 같거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등, 하이힐을 '내 몸의 일부'라고 하였다.

· 하이힐 안 신고 나가면 화장 안하고 나간 것처럼 너무 창피해요. 갑자기 다리가 잘린 것 같고, 난쟁이가 된 것 같고... (Case 2)

· 하이힐 안 신으면 뽕브라 안할 때 갑자기 가슴이 없어진 것처럼 머라 그러지 너무 허전하고 내가 아닌 것 같고... 걸을 때 발바닥 느낌도 이상해요. 발바닥이 꼭 신겨려서 이상해요... (Case 1)

· 하이힐은 내 다리 반쪽이에요. 하이힐 안 신고 나가면 집에 뭐 두고 온 것 같아요. 창피해서 바닥만 보고 다녀요. 누가 알아볼까 봐. (Case 3)

· 내게 있어 하이힐은 내 몸의 일부예요. (Case 4)

두 번째, 응답자들은 하이힐 착용 시 허리 및 발과 다리가 아파도 이상하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나아가 오히려 불편해야 정상적이라는 의식도 존재하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발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어도 괴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편하여 감각이 무디어진 후에야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으며, 착용 시 편하다면 그것은 하이힐이 아닌 운동화 같다고 하였다.

· 신고 다니다가 발 감각이 없어져도 늘 그러려니 하고 다녀요. (Case 7)

· 항상 9cm 구두를 신고 다녔었는데, 늘 허리가 아프고 발과 다리가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고 괴롭다고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Case 1)

· 고통이 지나야 진짜 내 것이 될 것 같은... 정말 신었을 때 늘씬해 보이는 구두가 있는데 한 사이즈 정도 작은 것 같아도 전 무조건 사요. 그냥 발을 구두에 맞추어요. (Case 5)

· 처음에 좀 불편하지 않으면 운동화 같아서 이상할 것 같고 그냥 그런 신발이 될 것 같아요. (Case 3)

· 발에 물집 터져도 밴드 붙여가면서 또 다른 샌들 신고 다니고 밴드 붙이고, 사실 지금도 왼쪽 가운데 발톱 빠지려고 해요. 가끔 계단에서 구르는데도, 저도 모르게 다음 날 그 힐을 또 신고 나가게 돼요. (Case 2)

위의 사례들은 앞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하이힐 착용 시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신체 느낌과 자세를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느낀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의식과 만족감에 관련된 시각적 촉각적 쾌감에 감각이 길들여져 있어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지고, 하이힐을 착용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과 감각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승환, 2008). 따라서 여성들은 하이힐을 착용한 변화된 신체 모습과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하이힐 착용 시의 불편함과 고통과 같은 신체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패션은 사회 문화적으로 재구성된 또 하나의 신체이며,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착용자의 신체와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하이힐 착용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이힐을 40켈레 이상 보유한 여성들과의 심층 면접을 실시, 하이힐 착용 실체와 착용 시의 감정 및 주관적 경험담에 관한 기초 자료를 탐색적이고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하이힐 착용 행동에 대

한 의식적·무의식적인 원인 및 심리 과정으로서의 설명을 통해 하이힐 착용 동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면접 결과는 크게 ‘외관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의 2가지로 구분되었고, 전자의 경우, ‘하이힐 착용 시의 신체 모습 변화’, 후자의 경우, 신체 모습 변화와 관련된 ‘하이힐 착용 시의 심리적 경험’으로 주제화되었다. 즉, 첫째, 응답자들은 높은 굽(heel)의 하이힐을 착용함으로써 신장을 보완시키고 몸매의 곡선을 변화시켜 사회 문화적으로 제시된 아름다운 신체 모습에 가까워지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이힐을 착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변화된 신체 모습은 착용자 자신의 내면에 반영되어 다양한 감정과 개인적인 심리적 경험들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5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감 및 자기만족감, 우월감 향상 등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2) 관능미와 정숙성을 포함하는 여성성의 향상과 표현, 그리고 여성적 우월감, 3) 무의식적인 성적 욕망과 감정에 대한 해소, 4) 성적 환타지나 즐거움의 충족, 5) 하이힐을 신체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불편함에 대해 익숙해지는 등의 본래의 신체 모습과 감각에 대한 회피 경향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식으로 접근하여 하이힐 착용 동기와 착용 행동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혹은 경험적 측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정량적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부분들, 즉,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이나 공상과 관련된 자기 모습, 자신도 알 수 없는 욕망이나 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자료와 주제를 이끌어내고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물론,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보다 깊이 있는 심층 면접과 정량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적·사회적·상황적·미적 동기, 혹은 의식·무의식 등과 같은 동기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접근하거나(김훈기, 2005; 임종원 외, 1999), 또는 신체 이미지와 성역할 변인같은 특정 심리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 연구를 제시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신장과 하체의 비율을 늘리고 몸매의 곡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이힐을 착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이힐 착용 시 신장이 커지고 몸의 굴곡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은 문헌들

을 통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제로 증명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다. 따라서 하이힐의 굽 높이별 신체 굴곡도 증가와 신장 증가와 같은 실증적인 계측 연구가 진행된다면 위의 사실을 학문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신체 길이와 다리 두께 등 착용자의 체형 특성에 따라 가장 매력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굽의 비율을 밝히고, 또한 디자인을 제시한다면 하이힐의 디자인적인 발전과 미학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하이힐 착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사회 문화적 이상미에 근접하여 자신감과 우월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적·공적 세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성적 매력이 풍부한 공상적 자기와 수집의 즐거움을 위해 하이힐이 활용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이힐은 ‘나’, 즉 ‘자기(self)’와 높은 관련이 있었다. 즉, 모든 응답자들이 ‘나를 완성’, ‘나를 표현’, ‘나를 향상’, ‘내 몸’, ‘내게 있어’, ‘OO한 내가 될 것 같은’ 등의 어구들을 통해 하이힐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며 자신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 제시된 자기 이론(self theory)을 기반으로 public self, private self, secret self 등 다양한 자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자기(self)에 대한 표상과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하이힐은 착용자의 여성성을 높이며 관능미와 정숙성의 상반된 속성을 내포하고 있고, 착용 시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 문화적 이상미를 만들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19C 서양의 코르셋과 여러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코르셋 또한 정해진 치수에 맞게 허리를 졸라매야 했지만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인 여성 이미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착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자기억제를 강화하게 만들어 잘 훈련된 마음과 통제된 감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최현숙, 1996; Cunnington, 1981). 또한 중상류층 여성의 패션에서는 정숙이라는 미덕을 위한 불가피한 상징이었던 반면, 노동계급과 창녀들에게는 성적 특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인기를 끌면서 계급을 건너뛴 매력을 지니기도 하였다(Craik, 1994). 코르셋 이외에도, 작은 발을 위한 중국의 전족, 서양에서의 과도한 머리장식, 13인치 허리를 위한 코

르셋, 창백한 피부를 위한 납·수은 가루분, 긴 목을 위한 쇠고리 등의 예처럼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 미에 도달하기 위해 몸을 해하거나 이성을 앞섰던 행동들이 존재하였었다(Horn, 1981). 따라서 코르셋을 비롯한 다양한 예들을 시대별, 문화별로 사회 문화적 시각에서 비교한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하이힐의 복식사적 의미를 조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하이힐을 신으면 땅에 닿는 부위가 발끝으로 보폭이 좁아지며 가늘고 높은 굽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부족하고 걸을 때마다 발과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어 엉덩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남성들의 시각을 자극한다고 한다(Jicai, 1994).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사례 중 관능적인 모습과 높은 자신감으로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남성들을 무력화시키는 경험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남성들은 하이힐 착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규명한다면 여성의 신체 및 외모에 관련한 하이힐 착용에 대해 지각자(perceiver)로서의 남성들의 시각과 견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의 이상적 신체 모습에 대한 문화적 코드나 사회적 관습, 남성 우위적 권력과 같은 ‘타자의 시선’이 실제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하이힐은 성적 욕망, 성적 매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감정과 욕망을 해소시키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Freud가 발은 원초적 상징이며, 구두는 여체를 상징한다고 한 것처럼 여성의 발과 신발, 그리고 여성의 하이힐 착용에 대한 근본 이유는 인간의 원초적인 성적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성적 매력을 위한 행동 중 하나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인류학적 시각이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면 하이힐 착용 심리에 대한 좀더 명확한 요인들을 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하이힐의 보다 근원적인 착용 심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소수의 여성들을 면접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모든 하이힐 착용 여성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25-33세의 연령대와 신장 162-170cm, 몸무게 48-55kg의 신체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형과 연령대의 응답자를 포함시킨다면 보다 새로운 특성과 시각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2001).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I. *복식*, 51(5), 157-173.
- 김선아. (2008).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특성 및 연대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2), 128-137.
- 김훈기. (2005).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 출판사.
- 로시, 윌리엄 A. (1993). *발과 신발의 풍속사-에로틱한 발*. 이종인 옮김 (2002). 서울: 그린비.
- 오세진. (2005). *인간행동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승환. (2008). 자본주의 신체 미학과 자아정체성. *철학연구*, 36, 271-303.
- 이의정, 양숙희. (1997). 패션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콜렛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237-255.
- 이지희. (2007). 상품에 나타나는 정신분석적 함의: 구두소재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1), 2-31.
- 임경복. (2008). 신체 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882-889.
- 임인숙. (2002). 한국 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183-205.
- 임종원, 김제일, 홍성태, 이유재. (1999). *소비자 행동론: 이해와 마케팅에의 전략적 활용*. 서울: 경문사.
-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해택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차은진, 박민여. (2001). 전족의 상징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5(8), 1398-1407.
- 채민정, 구교정, 채진미. (2008).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중부개정학회지)*, 17(5), 975-987.
- 최경희. (2008). 2000년 이후 한국 남녀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1), 1-21.
- 최현숙. (1996).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309-320.
- Bloch, P. H., & Richins, M. L.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 Marketing*, 9(1), 3-15.
- Cox, C. (2004). *Stiletto*. New York: Collins Design.
- Craik, J. (1994).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Routledge.
- Cunnington, C. (198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Faber & Faber.
- Eicher, J. B. (1981). Influence of changing resources on cloth-

- ing, textiles, and quality of life: Dressing for creativity, fun, and fantasy.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USA*, 36-41.
- Eicher, J. B., Evenson, S. L., & Lutz, H. A. (2008). *The visible self: Global perspectives of dress,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Fairchild Books & Visuals.
- Etcoff, N. (1999). *Survival of the prettiest: The science of beauty*. London: Abacus.
- Flensmark, J. (2008).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the use of heeled footwear and schizophrenia? *Medical Hypotheses*, 63(4), 740-747.
- Flügel, J. 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 Glesne, C. (2005).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Boston: Addison-Wesley.
- Horn, M. J.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 Jicai, F. (1994). *Three-inch golden lotus: A novel on foot binding(fiction from moder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Kerrigan, D. C., Todd, M. K., & Riely, P. O. (1998). *Knee osteoarthritis and high- heeled shoes*. London: Lancet.
- Kim, H. (1993). Women's role change in advertizing: A content analysis of U.S. magazine advertising, 1930-198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7(3), 407-414.
- Lawlor, L. (1996). *Where will this shoe take you?: A walk through the history of footwear*. New York: Walker & Company.
- Mazza, S. (1994). *Cinderella's revenge*.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 Miller, K. A. (1997). Dress: Private and secret self-express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4), 223-234.
- Myers, D. G. (2004). *Psych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 Patter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H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Riello, G., & McNeil, P. (2006). *Shoes: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London: Berg Publishers.
- Riordan, T. (2004). *Inventing beauty: A history of the innovations that have made us beautiful*. New York: Broadway.
- Simmel, G. (1957). Fash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May), 541-558.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alua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ang, P. (2000). *Aching for beauty: Foot-binding in china*.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